

민주연구원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2월 18일(목), “코스피 5,000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현재 해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머지않아 코리아 프리미엄의 코스피 5,000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올 코스피 5,000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코스피 5,000시대 맞이를 위한 정책으로 일반주주 권익 강화, 생산적 금융 확대, 고환율 관리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 첫째,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주환원 제고를 위한 현재 민주당에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3차 상법 개정안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언하였다.
 - 둘째,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업공시 개선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 방식에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반영하여 상장기업의 실제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유도 등의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 셋째, 가계부문의 비생산부문(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인 강화 정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제언하였다.
 - 넷째, 현재 코스피의 상승폭을 억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인하와 향후 일본의 금리인상과 같은 주요국들의 엇갈리는 통화정책에 의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를 제시하였다.

-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의 흐름 속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개정된 상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진짜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앞으로 꾸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확대,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관리가 조화를 이룬다면, 코스피 5,000시대는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